|  |  |  |
| --- | --- | --- |
| EMB00000e5c3d1e |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보도자료 | **24** |
| 2012. 6. 1(금) |
| Press Center 전화 (064) 780-8471 / 팩스 (064) 780-8466 |

사모펀드의 최근 동향과 쟁점

**○ 역할 참가자**

**사 회 :**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발 표 :** 이제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핵심 사항(Key Points)**

- pef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액수로 30조원을 넘어섰다

- pef시장은 해외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 pef는 크게 금융사 내부에서 하는 것, 금융지주차원에서 별도로 만든 것, 그리고 독립 pef로 나뉜다.

- 이중 급성장하는 것은 독립 pef다,

- 최근들어서는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 헤지펀드 역시 성장이 예상되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발표자, 토론자별 발언내용**

**▲ 이제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국의 투자펀드는 다양하다

특히 최근 가장 이슈가되는 것은 pef와 헤지펀드다,

pef는 2004년 후반부터 본격화 됐다..

등록현황을 보면 2011년 작년 180개 정도 된다. 금감원에 5월 말 현재 200개가 넘었다. 액수로 보면 30조원이 넘는다. 헤지펀드는 작년말부터 13개 정도 됐고. 17개 정도 등록된다. 이중 5000억 정도된다. 헤지펀드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시작이 될 것 같다.

참석자들에게 궁금햇던 것이 있다.외국의 헤지펀드를 보면 간혹가다 보면 극단적인 경우 아무일도 안한다.

이 같은 헤지펀드 시장이 얼마나 시장에 교란 요인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Pef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제한이 없다. 누구나 될 수 있다.

반면 헤지펀드는 엄격한 제한요건을 가지고 있다.

물론 pef는 개인이 직접 한 아직 예가 없다,

사모펀드는 현재 세가지 부류다,

첫째 금융기관이 직접 하는 것이다..

둘째, 금융지주 사를 중심으로 해서 pe만 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신한 pe,우리 pe,가 그것이다.

셋째,독립 pe하우스. 기존의 증권사 운용사 백그라운드를 하고 잇는 상당히 활발하다.

이는 창투사들이 pe쪽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한국 뿐 아니라 글로벌 적인 트렌다.

이유는 경기침체로 벤처투자의 수익률리 낮기 때문이다.

또 pef는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다. 적어도 한 번 투자하면 100억 단위의 투자가 이뤄진다. 반면 벤처캐피탈은 여러 군데 쪼개 투자를 해야해 번거로운 면이 있다.

Pef는 특히 재무적 투자중심이다. 이유는 기업을 바이아웃할 만한 능력이 없다. 이를 위해선는 좋은 ceo가 필요한다. 한국에는 ceo마켓이 없다,

둘째는 pef 운용기관이 금융투자사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원금손실을 참기 힘들다. 때문에 이런 회사는 들은 많은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다. 한국 pef의 특징이다,

우리의 pef는 설립은 쉽지만 운용은 제약이 많다. 외국은 이와 반대다.

그래서 최근 pef들은 bw투자를 많이 한다, 특히 이는 기존 대주주에게 좋은 조건이다. 이유는 대주주의 지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pef의 운용관련해서 특징은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호텔업 자원개발. 해자법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자산운용을 하는 분들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에 투자를 할 때는 제대로 되는 건지알 수 없다, 때문에 외국 로펌이 없이는 할 수 없다. 중국 기업들을 보면 투자할 때믄는 상무부 허가, 공상국 등록, 택스 세무서 또 등록을 해야한다.

일례로 2007년 두바이투자를 하는 업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건설회사가 10배가 뛰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두바이는 토지소유권의 개념이 없다. 왕토인 것이다. 사용권만 있다. 외국사람 투자를 동이나 구별로 하는 정비해가고 있다. 해외투자를 하는 어려운 부분이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투자를 받는 나라에서 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 또 투자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펀드간에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Pef 사업 역시 급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헤지펀드는 당분간 힘들 것 같다. 물론 성장은 꾸준히 이뤄질 것이다. 성장이 당분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관련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헤지펀드는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보면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자금을 모으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